

# 토티넘 남나, 떠나나 손흥민 '선택의 시간'



영국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겨울 이적시장이 열리면서 올 여름 토티넘과 계약이 끝나는 손흥민의 '계약 연장' 여부를 놓고 관심이 뜨겁다.

EPA=연합뉴스



잉글랜드 프로 축구 프리미어리그(EPL) 겨울 이적시장이 현지시간 1일부터 열리면서 올 해 여름 토티넘과 계약이 끝나는 '캡틴' 손흥민(32)의 '계약 연장' 여부를 놓고 팬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2015-2016시즌 토티넘에 입단한 손흥민은 이번 시즌까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무대에서 10번째 시즌을 맞이했다.

이미 '월드 클래스 공격수' 반열에 오른 손흥민은 토티넘에서 다양한 기록을 남겼다. 2021-2022시즌 정규리그에서 23골을 터트리며 EPL 공동 득점왕을 차지했던 손흥민은 2016-2017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무려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하며 토티넘의 '레전드' 자리를 예약했다.

지난달 16일 치러진 EPL 16라운드에서

EPL 이적시장 오픈... 여름 계약 만료 앞두고 행보 주목  
1년 연장 옵션 추측 속 바르셀로나·맨유 등 이적도 거론

는 사우샘프턴을 상대로 1골 2도움을 작성, 토티넘 입단 이후 EPL 무대에서 68개의 도움을 쌓아 '토티넘 역대 EPL 최다 도움 선수' 1위에 오르는 대기록을 세웠다.

손흥민은 토티넘 입단 이후 지금까지 공식전 430경기를 뛰면서 무려 169골을 넣어 '토티넘 역대 최다 득점' 4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2015년 8월 레버쿠젠(독일)을 떠나 2200만 파운드(약 393억 원)의 이적료로 토티넘과 5년 계약을 했던 손흥민은 2018년 7월 재계약을 통해 2023년까지 계약 기간을 늘렸고 2021년 7월 두 번째 재계약을 하면서 2025년 여름까지 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팬들과 언론들은 지난해 여름

부터 손흥민의 재계약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무엇보다 2025년 7월 33세에 접어드는 손흥민의 나이가 장기 재계약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고, 지난해 여름부터는 재계약 대신 토티넘이 '1년 계약 연장 옵션'만 가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줄지어 쏟아졌다.

하지만 팬들과 언론의 높은 관심과 달리 토티넘의 움직임은 미적지근하다.

손흥민 역시 "남은 계약기간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언급만 내뱉을 뿐이다.

해외 언론들은 손흥민과 토티넘의 계약 만료가 1년을 남긴 순간부터 손흥민의 '차

기 등지로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상 스페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 페네르바체, 갈라타사라이(이상 튀르키예) 등을 언급한 상태다.

EPL 이적시장 개장과 함께 손흥민을 둘러싼 해외 매체들의 이적 전망도 다양하게 도출되고 있다.

손흥민은 올 해 여름 계약이 끝나게 돼 EPL 구단은 물론 다른 해외리그 팀들과도 협상할 수 있다.

토티넘으로선 올해 33살로 접어드는 손흥민과 장기계약을 하는 대신 1년 연장 계약을 발동한 뒤 거액의 이적료를 받고 이적시키는 게 최선의 선택지라는 게 해외 매체들의 분석이다.

한 달에 걸친 겨울 이적시장에 손흥민과 토티넘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 D-1... 김혜성 '운명의 날'

내일 오전 7시 MLB 계약 마감  
2~3개 구단서 구체적 제안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진출을 노리는 김혜성(25·키움 히어로즈·사진)에게 '운명의 이틀'이 시작됐다.

지난달 5일 MLB 사무국이 포스팅 공시한 김혜성의 계약 마감 시한은 한국시간 4일 오전 7시다.

이 시간까지 계약하지 못하면 이번 시즌 포스팅은 종료되며, 내년 11월1일까지 다시 포스팅할 수 없다.

2024시즌으로 포스팅 요청에 필요한 'KBO리그 7시즌' 자격을 채운 김혜성은 소속팀 키움의 동의를 구해 MLB 진출 도전을 공식화했다.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소속사 CAA 스포츠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김혜성은 지난해 11월 말 출국했다가 지난달 23일 귀국했다.

현재는 국내에서 개인 훈련을 진행 중이다.

김혜성의 포스팅 소식이 미국 현지 역시 작지 않은 관심을 보였다.

지난해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만큼은 아니더라도, 김하성(FA)의 성공 사례 덕분에 '4년 연속 KBO 골든글러브 수상자' 김혜성도 '에비 빅리거'로 대접받았다.

'MLB트레이드루머스'는 김혜성을 이번 스토브리그 FA 랭킹 26위로 매겼고, 영입을 검토한다는 10개 가까운 구단의 명단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포스팅 시장에 나온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어도 계약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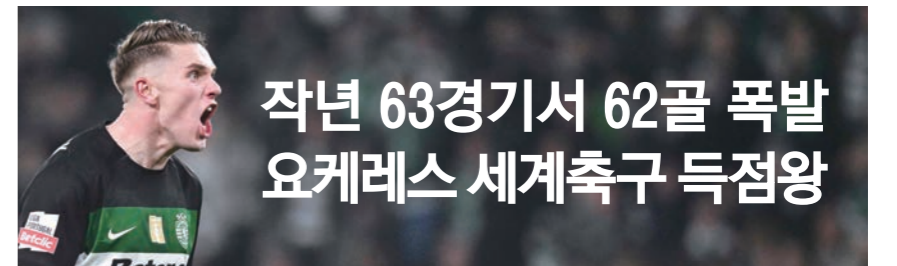
김혜성의 장점은 KBO리그 통산 타율 0.304에 이르는 콘택트 능력과 211개의 도루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빠른 발이다.

이러한 장점은 빅리그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줄 것으로 평가받는다.

반면 통산 37홈런에 그친 장타력과 2루가 주 포지션인 점은 순조로운 계약을 가로막는 요소다.

김혜성은 지난달 귀국 당시 내년을 기약하고 국내에 복귀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과 달리, 계약 제의는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 표명'은 10개 구단이 넘지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 제안'을 한 구단은 23개 구단 정도다.



# 작년 63경기서 62골 폭발 요케레스 세계축구 득점왕

포르투갈 프로 무대에서 활약하는 스웨덴 국가대표 스트라이커 빅토르 요케레스(26·스포르팅·사진)가 2024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축구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국제축구연맹(FIFA)과 포르투갈 공영 방송 RTP가 1일(한국시간) 소개한 바에 따르면, 요케레스는 2024년에 프로와 국가대표팀 경기를 합쳐 공식전 63경기에서 62골을 기록했다.

스포츠링 소속으로 56경기에서 52골을 터트렸고, 스웨덴 국가대표로 A매치 7경기에 출전해 10골을 넣었다.

시즌으로 구분하면 2023-2024시즌 후반에 30경기에서 26골, 2024-2025시즌 전

반에 33경기에서 36골을 몰아쳤다.

지난해 12월에 6경기에서 3골만 넣었음에도 경기당 0.98골로, 사실상 출전하면 한 골씩은 기록한 셈이다.

요케레스의 가공할 득점 레이스에 그나마 가장 근접했던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괴물' 앨링 홀란(맨체스터 시티·49골)인데, 13골 차이가 났다.

FIFA는 21세기 들어 한 해에 요케레스보다 많은 골을 터트린 선수는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바르셀로나·2021년 69골),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나스르·2013년 69골),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2012년 91골)뿐이라고 밝혔다.